



K-공감

이제는 지방시대

국내 유일 하이다이버 최병화의 도전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 도입 중앙경찰학교를 가다
'식객'과 '고독한 미식가'가 만나다
'기부천사' 이장현·이예원 부녀

지방시대 선포식
"말로만 외치지 않겠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대국민 사진공모전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

지난 70년간 동행해 온 한미 양국의 우정과
발자취가 담긴 사진과 사연을 응모해 주세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접수 (팀 접수 불가)

*1인당 사진 최대 5점 이내 응모가능
(단, 수상은 1인 1회로 한함)

! 공모일정 !

• 접수기간
2023년 9월 11일(월) ~ 2023년 10월 8일(일)

• 결과발표
2023년 10월 19일(목)

! 수상작 !

70점 선정

*본 공모전 이후 수상작들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1년 간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며, 수상작들을 활용한
기념영상 등 2차 저작물을 국방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상 품 !

수상자 전원 (10만원 상당 상품권, 강한 국군 피규어 세트,
강한 국군 무기 4종 우드락 모형 세트)

! 공모사진 !

- ① 6·25전쟁 당시 참전 미군과 함께 찍은 기록사진
*사진 당사자를 대신한 가족이 응모 가능
- ② 한미 간의 우애를 담거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인물 사진
- ③ 국군 혹은 일반인으로서 미군과 함께 찍은 사진
- ④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관련된 인물 사진
*예)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 미군 전사자 명비에서
찍은 사진 등

! 제출방법 !

응모 사진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담긴 사연과 함께 온라인 제출

*선명한 화질의 JPG파일로 제출 필요 (20MB 이하로 제한)
*화질이 떨어져 추후 전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및 문의처 !

한미동맹70사진.com
☎ 070-4808-3889



한미동맹70사진.com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명절 노리는 금융사기 방어 수칙!



박진영

금융·경제 콘텐츠를
26만 MZ세대에게
매일 아침 이메일로
전달하는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연휴는 6일로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친지, 지인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들 들뜬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마냥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은 2회 방문 후 부재 시 우체국에 보관 없이 반송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은 다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래에 주문한 물건이 있다면 큰 의심 없이 그 물건의 배송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명절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명절맞이 선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따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택배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악용해 명절 선물 택배 배송 문자를 활용한 스미싱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금전을 탈취하는 식이에요. 문자메시지에 배송 안내 인터넷 주소(URL)를 넣어둔 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게끔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전화로 금융 지원 안내를 해준다면 금전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령층이 주요 피해자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드는 와중에도 20대 피해자는 늘었어요. 전체 피해자 중에서도 20대 비중은 47.9%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대는 사회생활과 금융거래에서 실전 경험이 적어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해 연락해올 경우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20대 피해 금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경제생활의 경험치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금융사기 피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뉴스에 적지 않게 등장해왔습니다. 2020년 2월 국민청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달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20대 취업준비생의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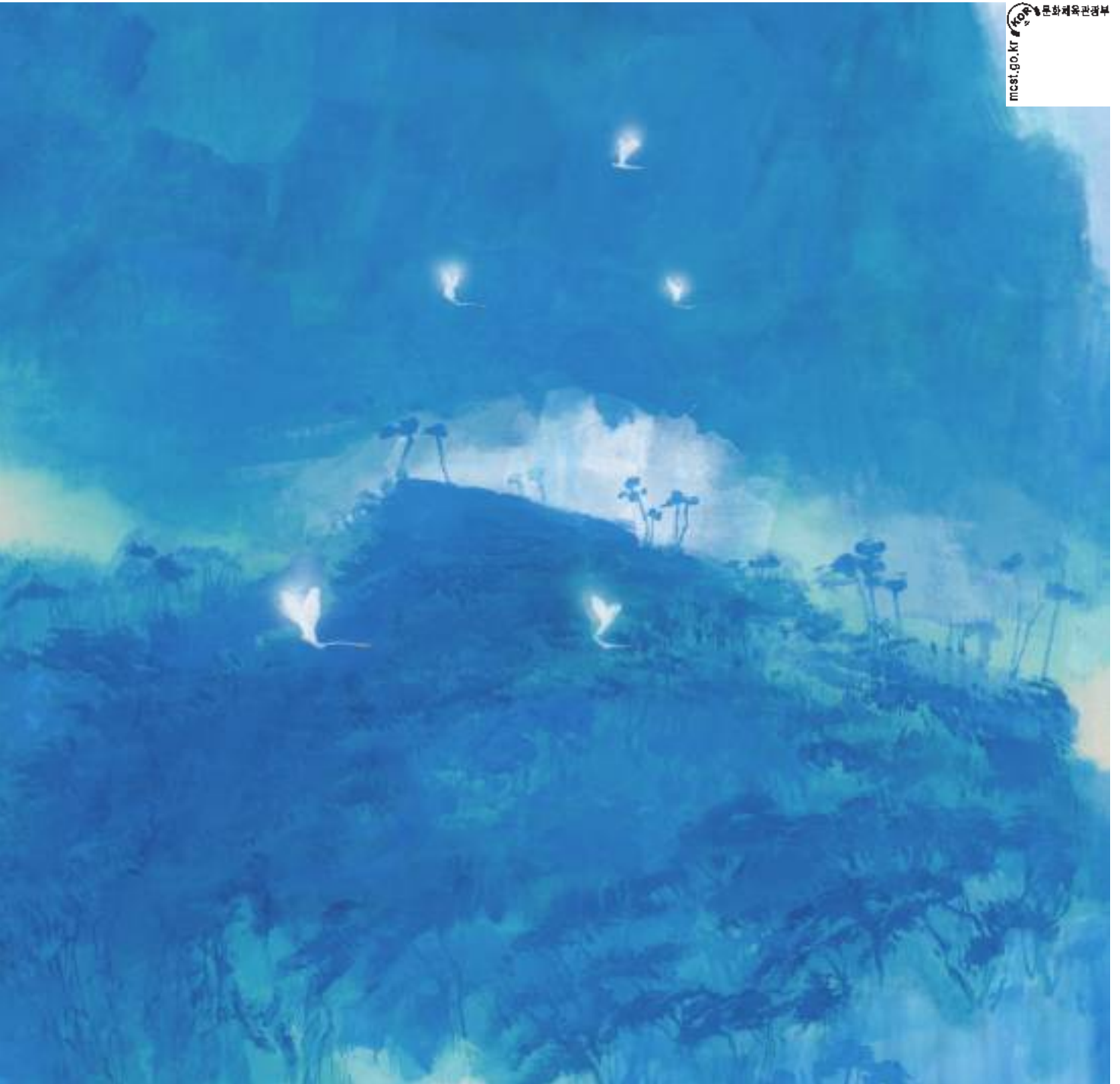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른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1332)’ 또는 입금 및 송금을 한 금융회사의 콜센터, 경찰청으로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먼저 신청하세요.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대처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금융사기는 새로운 형태로 변신해 찾아오곤 합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 대처방안은 꼭 숙지해두기로 해요. **K**



왕열, 〈유토피아-동행〉, Acrylic on canvas, 140×280cm, 2023년

우리들의 유토피아



좋은 그림은 보는 것만으로 편안해지고 위안을 준다. 왕열의 〈유토피아—동행〉이 그렇다. 이 그림은 내용을 분석하기도 전에 먼저 색깔부터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코발트블루 같은 청색과 계곡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흰 운무가 몽환적이면서도 신비스럽다. 어쩌다 올려다본 가을 하늘 혹은 어느 여행잡지에서 본 깊은 바다의 산호초가 저 색깔이었을까? 인공이라고는 전혀 가미되지 않은 화면은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태초의 원시림을 보는 듯하다. 민들레 홀씨 같은 백학들은 나비처럼 가벼운 날갯짓으로 하늘을 날아간다. 구름도 피어오르고 새들도 날아가지만 그림 속 세상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림 중앙에 멈춰 선 말조차도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 이곳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해주는 가상공간이자 유토피아다. 유토피아는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다. 사람들은 마음이 정처없이 떠돌 때면 유토피아와 무릉도원에 들어가 쉬면서 지난한 세월을 견뎌왔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으니 그림이야말로 지친 영혼들을 유토피아로 안내하는 전령사다. **K**

조정욱 미술평론가



2023.09.18-24

No.722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3년 9월 18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박보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커버스토리

이젠 지방시대! “말로만 외치지 않겠다”

- » 지방시대 선포식...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 » 지방에 사람들이 붐빌 수 있게! 5대 전략·9대 정책 추진

06



표지사진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세대공감 MZ세대의 생각

- 01 박진영**
‘명절 노리는 금융사기 방어 수칙!’

공감갤러리

- 02 왕열**
〈유투피아-동행〉

정책 돋보기

지금 용산은

- 20 “취임 이후 50여 개국 정상 만나
우리 국민·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과 만나겠다”**

알쓸정책

- 22 ‘50년 만기 주담대’
최대 40년으로 축소 외**

돈 되는 정책

- 26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이슈

- 27 2024년 마약 대응 예산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휴게실 라운지

- 28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

현장

- 29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G20 정상회의

양자회담만 20개 숨가쁜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

포커스

30 인공지능을 전 국민 일상 속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32 “방류 이후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없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34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K-피플

36 국내 최초·국내 유일 하이드라이버 최병화

정책현장

40 중앙경찰학교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 참관

문화현장

43 청와대의 가을밤, K-음악 흐르고 드론 춤추고

문화

45 달빛 밝으며 청와대로 밤 산책 가볼까

우리 동네 공간이야기

46 만화 도서관 겸 서점 ‘그래픽’

K-푸드

51 ‘식객’과 ‘고독한 미식가’가 만났다

숨은 국대 찾기

52 ‘기부천사’ 이장현·이예원 부녀

카레부부의 주말여행

56 전남 광양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 경남 하동 쌍계사

웹툰 임남택 변호사의 공감하는 법

60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기

몸건강 마음건강

61 많을 때는 아군, 적을 때는 적군

함께 즐기다

62 공연 장한나&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외

64 독자 공감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다.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지방시대를 펼쳐갈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으로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 가치는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바와 일치한다.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에서 강조될 ‘자율’이라는 가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 또한 지방시대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자율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역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두가 연대할 때 ‘희망’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5월 12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상관없이 더 역동적인 사회, 사람들이 몸으로 뛰면서 움직이는 사

지방시대 선포식

2023. 9. 14. (목)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요약하자면 지방시대는 지방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연대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이행할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에서 마련한 청사진을 이번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선보였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4대 특구다. 그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 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에 모든 기회와 편의가 집중돼 있는 현상은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는다. 자연히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돼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 설계하고 지침함으로써 지방의 특성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비전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수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	
5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4대 가치	자율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공정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연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희망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추진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구로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업 육성전략, 기업의 투자계획,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정부가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전 기업에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한다.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서울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받도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과 문화생활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는 자녀를 둔 가족을 수도권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방에 살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 체제에서 적성을 다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례와 전략 등을 세워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도 2월 1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같은 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발표했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RISE가 도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
”

입되고 나서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지방정부가 대학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났다. 경북은 지방정부의 고용재원 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했고, 부산은 지역·산·학 협력에 5년간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대학 사이 소통도 활발해졌다. 지역 여건에 맞는 RISE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협의회와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면서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구가 조성되면 유아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 좀 더 손쉬운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초·중·고 시기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효과적인 공교육 내실화가 이뤄질 것이다.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 이양

4대 특구 중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전을 예로 들면 옛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에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명품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식이다.

문화특구에서는 지방이 지방다움(로컬리즘)을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지원한다. 2023년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한 강원 양양의 서퍼비치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자생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조성될 디지털 혁신지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지방시대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중앙정부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추진 동력이 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지방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해 지방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한다.

자율과 연대, 공정과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면 지금과 다른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돌입하고 나서 5년 뒤에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방 청년 인구가 2023년에는 전체의 45%지만 2027년에는 50%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글로벌+로컬) 대학이 30개 교로 늘어나는 등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된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 찾고 지방에 청년이 붐빌 수 있게 5대 전략·9대 정책 추진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는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것과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성장시키고 지방의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는

방안,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9대 정책을 관통하는 가치는 ‘자율’이다. 지방이 주도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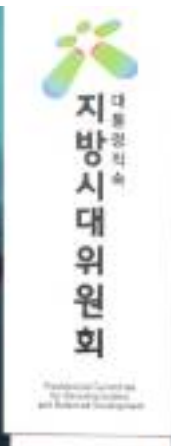
지방시대위의 정책 중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26년부터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

다. 대상이 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와 인프라 등의 범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과 디지털 신기술로 성장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첨단·신산업을 입주시키고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방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5개 이상 생겨날 디지털 혁신지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신산업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7월
10일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조성된다.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일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재창조를 위해서는 산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키우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고도화하고 주민시설을 스마트화하는 등의 '스마트빌리지'를 확산시킨다.

살면서 일하고 싶은 지방 만들기

지역 특화 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 킬리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것이 지방시대위가 추진하는 9대 정책 중 하나다. 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까지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요규제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농어촌 공간은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

지방시대 9대 정책

기회발전특구 지정: 양질의 신규 일자리

-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기회특구
- 규제특례, 국제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

교육자유특구 도입: 지역·대학 동반성장

- 지방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방정부 주도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방 도심에 일자리·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개발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역 정체성 담은 로컬 콘텐츠·브랜드 발굴 및 육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및 산업단지제도 혁신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핵심인재 양성, 강소기업 육성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방 킬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현장중심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 중앙 권한·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역량 제고

주도로 재설계한다. 농촌의 경우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2027년까지 200곳의 농촌을 새로 꾸밀 계획인데 협약을 체결하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어촌은 배후마을과 안전시설을 개선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300곳에 2030년까지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술교육과 농지, 어선을 임대해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2027년에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은 농업인 3만 명, 어업인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람이 붐빌 수 있게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2023년에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의 지역활력타운에서는 청년 상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지원되고 버스승강장 정비,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포식에 이어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

양자회담만 20개 숨가쁜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월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인도 뉴델리에서 9월 9일과 10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회원국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면서 어떤 나라의 영토적 통합과 주권,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영토 획득을 추구하기 위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변화 대처와 금융통합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안들이 담겼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불참으로 회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됐으나 예상을 깨고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다음 G20 정상회의는 2024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국제사회에 닥친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9월 10일 열린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2024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9일 첫 번째 세션 ‘하나의 지구’에선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하루에 세 차례 환담하며 친분을 드러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변화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

윤 대통령은 9월 9일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하나의 지구’ 세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GCF는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금으로 2013년 출범해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GCF 초기 재원(2014~2019년)과 1차 재원보충(2020~2023년) 당시 각각 1억 달러, 2억 달러를 공여했다. 2차 재원보충(2024~2027년)을 앞두고 3억 달러를 한꺼번에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나가겠다”며 차세



G20 정상회의 일정

9월 8일

- 인도 뉴델리 도착
-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9월 9일

- G20 정상회의 환영행사, 세션1(One Earth)
- 므타(MITKA) 정상회담
- 튀르키예·아르헨티나 등 정상회담
-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



9월 10일

- G20 정상회의 세션3(One Future)
- 간디 추모공원 헌화·식수
- 인도·일본 등 정상회담
- 인도 진출 기업인 간담회



사진: 대통령실

9월 11일

- 서울공항 도착

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수소차 생산·활용 등 기술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적으로 부상한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다 위의 탄소중립,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로 가는 열쇠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이라며 “대한민국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2022년 12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협력하기로 한 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를 함께 진행해왔으며 오는 11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지원”

9월 10일 열린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며 “현재는 감염병 대유행과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9월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타(MIKTA)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 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의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을 설명하며 “이달 말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들간 6대륙 정상 다 만났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틀간 6대륙 국가 정상을 두루 만나며 공격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정상들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만 20여 개 국가

의 정상급 지도자들을 만나 미국·중국·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에서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으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폐회 직후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남에서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의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회의 등에 나란히 참석한 후 뉴델리에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을

“윤석열정부 외교 지평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로 확대”

외신들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윤석열정부의 외교 지평이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인도 <더 힌두>는 9월 8일(현지시간) 지난 8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이번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디플로매트>도 9월 9일 ‘한국이 대서양 연안 공동체에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로 한국은 유럽과 대서양 공동체 방위 확보에 있어서 필수 축으로 부상했다”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내용은 대서양 연안 공동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유럽·대서양 지역과 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6대륙 20개국 정상들과 회동하고 2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고 신시장 확충을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섰다. <로이터>와 <인디펜던트> 등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마닐라스탠드> 등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도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디지털·그린산업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 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인도 간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와 인도 <더 이코노믹 타임스>, <퍼스트포스트> 등은 한국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위해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인도 <비즈니스스탠더드> 등이 보도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 재건 의지도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7일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등 다수의 외신은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표명하는 등 3국 협력 부활에도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콤파스>, <AP>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기회를 가졌다.



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초를 평가하고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기술(IT), 전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방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함께 현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전날에는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튀르키예·나이지리아·코모로와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므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들과 회동 후에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분열 심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물가상승률, 부채 취약성, 극심한 빈곤, 불평등 심화, 팬데믹의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의 안정, 성장과 번영을 위협하는 다차원적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과제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적 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며 유엔 헌장 상 모든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뉴델리서 ‘한·미·일’ 협력 다지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만찬장과 회의장 등에

서 만나 세 차례 환담을 나눴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 환담의 주요 주제는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모아졌다. 세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한 성공적 결과를 거듭 확인하며 관계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9월 9일 모디 인도 총리 주최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1시간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같은 테이블에 모디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양자회담장을 지나던 중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동감한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위 사진)을 갖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환담(아래 사진)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진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 사진 대통령실

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 이행의 시작점으로 삼는 분위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은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기여 협력, 구체적으로 개발협력과 해양 안보, 디지털 첨단기술의 성장 토대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 간디 추모공원 헌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나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앞서 9월 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만나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K** 강정미 기자

인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인도는 인·태 함께 가꿔나갈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는 자유·인권·법치를 기반으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함께 가꿔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월 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는 쉬지 않고 발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경제 개방 초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은 과감하게 인도에 진출했다”며 “이제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은 인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금융, 방산, 식품, 의류 등의 분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인도 시장을 개척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양국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50만 우리 동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돼 동

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릴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거나 모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인류 전체의 도전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는 데 동포 여러분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에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와 전자,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인도 시장과 진출 전략을 나누고 통관, 행정 규제 등 현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시장 각 분야에서 한국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 기업이 인도 시장의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커도 뚫기 어려운 5가지 보안 수칙



1 비밀번호 설정할 때 나만의 공식 쓰기

비밀번호에 해당 사이트 영문주소 활용 또는
가운데 심표 넣기



2 아는 사람이 보낸 악성메일? 첨부파일, URL 등 실행 전 한번 더 의심

누가 보내든 의심하고 침해사고
발생 즉시 118로 신고!



3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실시간 감지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지와
자동 업데이트 설정



4 한 달에 단 하루만이라도! 반드시 업데이트 메뉴 확인

정품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실시



5 아무나 볼 수 없게, 불필요한 공유는 NO!

사용하지 않는 PC 공유 폴더는 제거하고
중요한 자료는 백업 및 암호 설정



● 개인 PC·모바일 기기를 무료로 보안점검
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 - 개인서비스 - 내PC·모바일 돌보미
서비스 <https://www.boho.or.kr> 를
참고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취임 이후 50여 개국 정상 만나 우리 국민·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과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19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

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에선 “안보·경제·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 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

우리나라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 의 정상회담에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 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초거대 AI 기업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

강정미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최대 40년으로 축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대출 급증… DSR 규제 우회 악용 가능성”

50년 만기였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또 특례보증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7월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늘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증금자리론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례보증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부터 50년 만기 대출은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됐다. 대

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현재 4억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9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이상 ▲2주택자에겐 특례보증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은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2024년 1월까지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호우·태풍 복구비 1조 8236억 원 확정

**피해액의 2.2배 수준
재난지원금 이외 위로금
추가 지원**

8월 10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119구조대가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정부가 장마철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로 총 1조 8236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피해액 8071억 원의 2.2배 수준이다.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7월 31일과 8월 23일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7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개 동, 주택 침수 2284개 동, 소상공인 2069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헥타르(ha)가 유실·매몰됐다. 농작물은 6만 8567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8월 9일부터 11일 동안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액은 총 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개 동, 주택 침수 489개 동, 소상공인 391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나서 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 돕는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민·관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수도권 청년 2000명에게 거주비용 150만 원과 학습공간 이용비 60만 원을 지원한다. 9월 12일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인 구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수도권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

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청년이다.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선정된 청년 중 1000명에게는 거주비용으로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나머지 1000명에게는 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 이용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8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2023년 대비 32%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와 24

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활동수당도 2023년 보다 5% 늘어난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

중고장터 거래도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7월 17일~8월 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제의 게시물은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 등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 간 통폐합 때 정원 안 줄여도 된다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

대학 통폐합,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

학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으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인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뜯어고쳤다.

대학 간 통폐합도 수월해진다. 통폐합 때 정원을 일부 줄이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캠퍼스 이전 역시 쉬워진다.

상습적 침수 피해 막아라!

홍수 예보기능 대폭 확대

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역과 같이 장마철 상습적인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발적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9월 중 공포해 2024년 3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

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2024년 152억원 올해보다 3배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 1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48억원)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모두 9곳을 선정했으며 그중

2019년도 시범 4곳은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2024년에는 임대주택단지를 17곳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모두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K**

정광성 기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요즘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교묘한 대출광고 등으로 청년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요. 점점 불어나는 빚,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리대금, 과도한 빚 독촉, 법률 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당장 임대료 낼 돈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등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 문제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사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용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피해 내용은 '고금리 요구'가 25.6%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13.3%)', '불법 광고(11.7%)', '유사 수신(대출) 행위(8.5%)', '부당한 수수료 요구(0.3%)' 등이 뒤를 이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정 최고치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받거나 과도한 빚 독촉(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은 말 그대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해 대응하는 역할을 해요. 법정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해줘요. 더불어 대출 계약, 추심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각종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 게다가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이나 법률상담 콜센터(132)로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돼요.

2022년에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73%가 20~30대로 나타나는 등 젊은 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기성세대뿐 아니라 누구나 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대출을 받을 땐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 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해요. 무엇보다 대출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금감원 누리집(fine.fss.or.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어요. 금융회사 이름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나 전화, 원금과 투자금을 보장하는 투자권유 등 유사 수신 행위도 조심해야 해요. 이 같은 스미싱은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하세요. 핸드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터무니없는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핸드폰깡', SNS로 정부 지원 대출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 금융사기도 주의하세요.

과도한 빚 독촉은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서울 본원 및 11개 지역 민원상담센터를 통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조원 기자



불법사금융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전화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2(3번 선택)

인터넷 신고

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자료 금융감독원

마약중독재활센터 14곳 늘리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 신설

2024년 마약 대응 예산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9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마약류 단속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상반기 마약 압수량 전년 대비 51.4% 증가

국과수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2022년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을 집중한 결과 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은 1만 252명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8575명보다 19.5% 늘어난 것이다. 마약 압수량은 571kg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4%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도 마약류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이 신속하게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수사·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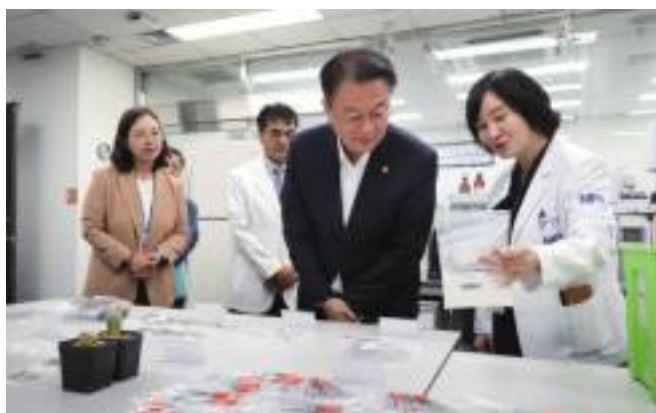
장비 관련 예산은 55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관련 예산도 9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확대했다. 마약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까지 늘리는 데 74억 원을 편성했다. 14억 원을 들여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에는 45억 원을,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는 3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합성 대마, 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

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 및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과수 전체 감정 건수의 약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장기현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9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 전략 지속 이행으로 성공모델 창출”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9월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2022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29개의 정책방안을 발효하는 등 후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 계획 ▲디지털권리장전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024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수단이 된 것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3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정 통신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춤춤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추진”

사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전달했다.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박영수 원장은 33년간 노인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은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복지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했다. 조 장관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약자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용환 통신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걷기 운동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진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9월 9일 서울 광진구 독서한강공원에서 열린 ‘심장의 날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심장의 날’을 계기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독서한강공원수변무대부터 낙천정나들목까지 약 3 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은 2021년 사망자 31만 7680명 중 19.6%를 차지할 만큼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신체활동 실천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다. 지 청장은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일 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질병관리청은 검증된 건강정보의 제공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통신원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종합 3위 금메달 50개 목표! ‘팀코리아’가 간다



9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000여 명의 ‘팀코리아’ 선수들이 중국 항저우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2022 항저우하계아시안게임(이하 아시안게임)’을 열흘 앞둔 9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결단식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시·도 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수단은 훈련이나 부상 치료 중인 일부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참석했다. 단복을 입은 선수들은 “이제야 대회가 다가온 게 실감이 난다”며 포부를 다졌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디자인한 아시안게임 단복은 ‘백의민족’이 콘셉트다. 선수단에게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스타일을 적용했다. 재킷의 절개 라인과 바지 주머니 자수는 한옥의 팔작지붕을, 단추는 태극무늬가 중앙에 들어간 전통복 ‘대북’ 모양에서 착안해 만들었다. 벨트, 신발, 양말 등에는 태극기와 ‘팀코리아’ 로고가 새겨져 있다.

팀코리아, 39개 종목 1140명 파견

아시안게임은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됐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e스포츠와 브레이크 등 새로운 종목이 추가돼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

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최대 금메달 50개를 획득해 종합 3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대한체육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2위였던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의 강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남은 기간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기간 동안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 국민들과 마음으로 함께 뛰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올해 아시안게임은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길 기원한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 및 선수단 소개가 끝난 뒤 이 회장이 최윤 선수단장에게 단기인 태극기를 전달했다. 한국 선수단의 기수는 남자 펜싱의 구본길과 여자 수영의 김서영이 나선다. 두 선수는 9월 23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대회 개막 사흘 전인 9월 20일 항저우로 향한다. 정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훈련과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K] 장기현 기자

인공지능을 전 국민 일상 속으로

2024년 9090억 원 투입

2023년 상반기 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미국의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였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올해 7월 챗GPT 사이트 누적 방문자 수는 약 15억 명에 달한다. 앞선 5월에는 방문자가 18억 명까지 치솟았다.

챗GPT 등장 이후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텐센트·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와 판단, 추론을 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메타는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문서작성과 전략수립 등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 ‘라마(LLaMA)2’ 출시 이후 후속작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텐센트는 화상 회의·광고 제작·게임 등 50개 프로그램에 접목해 구동할 수 있는 ‘훈위안’을 선보이며 챗GPT를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교육·공공 서비스 영역 등 생활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024년도 예산 9090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 반도체·ICT기술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초거대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민·관이 함께 초거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 역시 독자적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AI기업, 청년 창업

가, AI 연구자와 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AI 영리터 대화’에서는 KT AI2XL연구소 배순민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 LG 배경훈 AI 연구원이 참석해 국내 초거대 AI의 현주소를 살피고 글로벌 진출 전략, AI 위험성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AI 후발주자지만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와 플랫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과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이어 “특화 분야 응용서비스 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대학과 공동연구·‘거짓답변’ 막는 기술 개발

이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정책의 세부 내용은 크게 ▲AI 국제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개발을 위해 2024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AI 공동 랩을 구축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는 AI 공동 변형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


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한다. AI가 국민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 산업 육성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뜻이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대학과 기업, 청년세대와 총 1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을 강화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치안 분야와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기술적 문제를 제3의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AI가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놓는 ‘그럴듯한 거짓답변’,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2024년부터 착수한다.

네이버·카카오·LG 등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날 회의에서 연단에 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은 산업계를 대표해 개방형 혁신을 위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를 소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연구와 투자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네이버, LG AI연구원, 카카오, KT, SK텔레콤,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은 AI의 신뢰성 강화와 국제기준 준수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도전적 AI 연구 및 혁신적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개발 ▲AI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 등 국내 AI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거대 AI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해 세계 시장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나갈 것”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사회적 안전

독거노인

독거노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3) 141개 보건소
→ (’27) **261개** 보건소



복지 위기가구

AI가 위기정보
(44종)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학생

초·중·고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도입
→ (’26)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 **32책**

AI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실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
(’24년, 5,500개 점포)
AI 제품·서비스 이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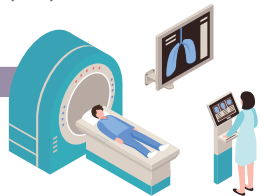
국민

AI 기반 지능형 CCTV 전환

(’23) 32% → (’27) **100%**

디지털 의료 확산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시스템, 질환진단AI,
응급의료시스템 도입 지원



산불 감지 AI 도입 확대

(’23) 4개소 → (’27) **50개소**



AI홍수예보 플랫폼 구축
전국 **223개** 지점 대상

“방류 이후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없다”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려한 만큼의 수산물 소비는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찾는 고객도 평소보다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늘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한식 해산물 전문점, 일식 해산물 전문점, 초밥집 등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도 소비 위축은 크게 드러나지 않

았다. 횃집 100곳은 전주 대비 매출액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수산물 소비가 유지되는 데는 정부가 진행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이 한몫을 했다. 해수부는 8월 31일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 대책에 호응해 수산물을 구매하러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오염수 1차 방류 종료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11일 일일브리핑에서 “첫 번째 방류분 방출은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방류가 시작된 후 오염수는 총 7763㎥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베크렐이었다. 박 차장은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류 기간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2베크렐에서 220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 원전 부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도 방출 중단 판단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는 1000여 개다. 이를 40개의 K4 탱크로 옮겨 희석 작업을 거쳐 균질화한 다음 삼중수소 농도



8월 27일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방사능 검사 어떻게 하나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실시... “안전 지속 확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해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매일 알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해역은 안전한 수준으로 지속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은 이처럼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류와 패류, 해조류를 생산하는 1만 2000여 개의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되기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위판 여부와 관계없이 92개 주요 조업 해역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국내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유통 전 신속검사로 실시해 안전성을 보다 강화해서 확인한다.

수협 위판을 통하지 않는 원양산 수산물은 유통 전에 냉동창고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국민과 어업인이 언제든지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만 건이 넘고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번에는 1차로 K4 탱크에 채웠던 오염수를 방류한 것으로 탱크를 청소하고 균질화 작업을 거쳐 준비가 되면 2차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 측에 따르면 2차 방류 시점은 10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에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

오염수 방류 전인 8월 22일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에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된 내용에는 우리 전문가가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서면 보고서를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통보하는 것 등이 있다.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8월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에 파견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 전문가들은 9월 8일까지 약 2주간 현장에 체류하면서 현장 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협의를 수차례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파견 기간 중 우리 측 전문가와 IAEA 본부, 현장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진행됐고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IAEA의 점검은 방류 기간과 동일하게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우리 측 전달관을 통해 일일 단위로 서면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도 9월 8일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원전시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은 오염수가 희석 설비로 옮겨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박 차장은 “1차 방류가 진행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이해가 쌓였고 한·IAEA 정보 메커니즘의 틀도 어느 정도 잡혔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초혼 연령 男 33.7세, 女 31.3세 남성 육아휴직 10명에 3명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1인가구 男 30대, 女 60대가 가장 많아

2022년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여성

2021년 33.4세
↓
2022년 33.7세

2021년 31.1세
↓
2022년 31.3세

2022년 우리나라 초혼 건수는 14만 8000건으로 2021년 대비 0.6%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2021년보다 남성은 0.3세, 여성은 0.2세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통계 속 남녀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사회상을 부문별로 볼 수 있다.

2022년 1인가구는 750만 2000가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남녀 중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30대(22.0%), 여성은 60대(18.3%)였다. 2022년 맞벌이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6.1%를 차지했으며 40대와 50대 비율이 모두 55.2%로 가장 높다. 2022

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전년 9만 3000건보다 8.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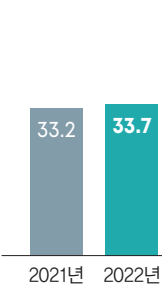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 첫 60%대 기록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2010년 52.7%보다 7.3%포인트(p) 상승했다. 여성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8.3%로 2010년 대비 2.8%p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12.4%를 기록해 2010년 10.0%보다 2.4%p 높아졌다.

2022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만 5000명)보다 2만 6000명 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8만 2886명에서 2022년 9만 3245명으로 약 1만 명

인구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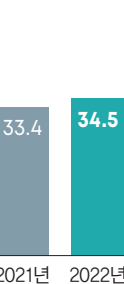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



맞벌이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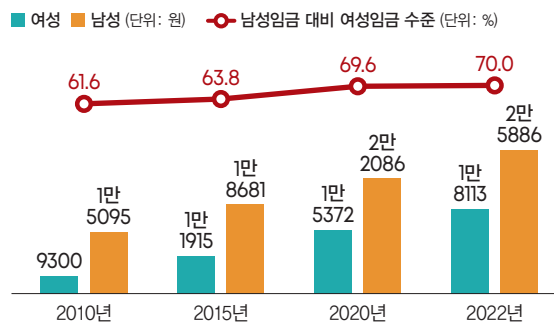


1인가구 비율



노동시장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만 2295명에서 2022년 3만 7884명으로 1만 6000여 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성별 구성비는 2019년 여성 78.8%, 남성 21.2%에서 2022년 여성 71.1%에서 남성 28.9%로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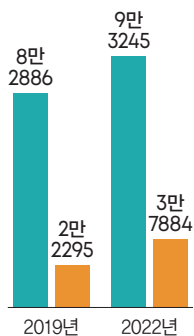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만 9000명으로 2019년 5600명보다 3.4배 증가했다. 2022년 남녀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남성은 17.3%로 2019년 대비 5.1%p, 여성은 14.4%로 2019년 대비 5.4%p 상승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활용 비율이 높았다.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23.7%, 남성 18.7%로 2020년보다 각각 1.4%p, 2.9%p 하락했다. 2021년 일과 가정생활 중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30대 여성(25.4%)과 남성(23.7%)이 전 연령 중

일·생활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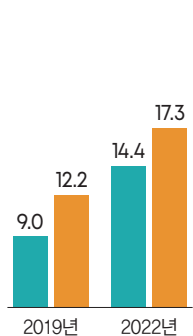
육아휴직자 현황

■ 여성 ■ 남성 (단위: 명)



유연근무 활용

■ 여성 ■ 남성 (단위: %)



가장 높았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9~29세 여성(33.6%)과 50대 남성(42.9%)이 가장 높았다.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 전년 대비 9.1% 상승

2022년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으로 남성의 시간당 임금 2만 5886원의 70% 수준이다. 2022년 여성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큰 폭으로 올랐다. 여성 가구주의 소득은 365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9.1% 상승했지만 남성 가구주의 가구소득인 7344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약 721만 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42.3%를 차지했다. 남성 직장가입자는 약 983만 명으로 57.7%였고 여성 직장가입자는 721만 4000명으로 42.3%를 차지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35만 9000명으로 2010년(145만 8000명)보다 1.6배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55.7%로 남성(44.3%)에 비해 높았다.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2020년보다 8.9% 늘었고 검거 건수도 2만 9013건으로 2020년(2만 8137명)대비 8.9% 증가했다. 2021년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만 975명으로 2020년 1만 1891명보다 7.7% 줄었다. 스토킹 검거 건수는 542건인데 전년도 481건보다 12.7% 증가했다. 2021년 폭력 상담 건수는 85만 9967건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는데 그중 가정폭력 상담이 60%를 차지했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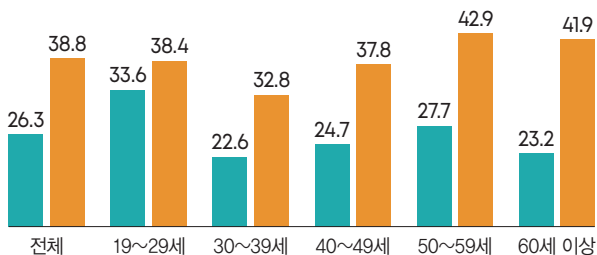
장가현 기자

사회인식

“일이 우선”

■ 여성 ■ 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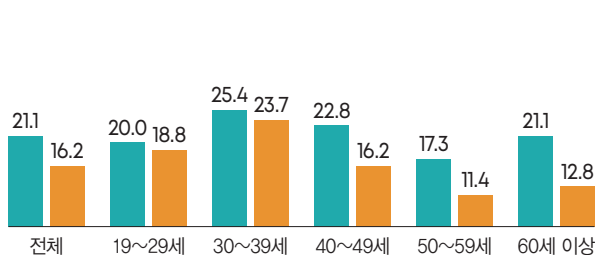


VS

“가정생활이 우선”

■ 여성 ■ 남성

(단위: %)



대한민국 최초·국내 유일 하이다이버 최병화

“하이다이빙이 삶의 길 알려줘 27m 하늘 위에 나만의 작품 남길 것”

한눈에 담기조차 힘든 아찔한 높이의 다이빙대 위. 우주를 향해 돌진하는 로켓처럼, 두 다리를 곧게 뻗은 다이버가 푸른 물빛을 향해 몸을 내던진다. 체공 시간은 단 3초. 지구는 엄청난 중력가속도로 그를 끌어당긴다. “퐁딩.”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면 아래로 사라진 다이버 주위로 사방에서 안전요원들이 달려든다. 이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살아 있다’는 신호다. 점수보다 생존이 먼저인 스포츠, 하이다이빙(High Diving)이다.

최병화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하이다이버다.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3 제20회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와일드카드(초청선수)로 참가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살아 돌아오기’를 목표로 삼았다. 하이다이빙은 워낙 위험 요소가 많아 경기를 끝마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탓이다. 선수들은 건물 10층 높이와 맞먹는 27m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며 고난도의 기술을 펼친다. 몸이 수면에 맞닿을 때 속도는 최대 시속 100km에 달한다. 부상을 막기 위해 바로 선 자세로 입수해야 하고 입수 직후엔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 경기를 마친 최병화는 “4라운드를 다 마치고 아직 살아 있으니 만족한다”며 웃었다. 성적은 23명 가운데 23위, 최하위였다. 그의 누리소통망(SNS)에는 ‘대한민국 1등보다 세계 23위가 낫다’는 응원 댓글이 답장처럼 달렸다.

‘꼴찌’를 향한 찬사에는 이유가 있다. 그가 이 종목에 입문한 지 7년 만에 세계무대 데뷔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엔 하이다이빙 선수 등록 시스템조차 없다. 최병화는 국제수영연맹의 초청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이 인정한 국가대표는 아니다. 훈련과정은 험난했다. 우리나라엔 27m 높이의 다이빙 플랫폼이 없는 것은 물론 등록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10m 높이의 정규 다이빙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코치가 없어 홀로 동영상 보고 기술을 익혔고 자비를 들여 해외 훈련캠프에 참가했다. “청약통장 날리고 집도 차도 날렸다.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최병화를 만났다. 치밀한 자기관리로 다진 완벽한 근육질의 몸, 인터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는 시선, 청자를 향해 정확히 뿜어내는 단단한 목소리. 거기에 반 묶음으로 내린 긴 머리까지. 운동선수보단 예술가에 가까웠다. 그는 하이다이빙이 ‘인생을 함축한 예술’이라고 했다.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주 울먹였다.

하이다이빙은 우리나라에선 비인기종목도 아니다. ‘비인식종목’이다. 큰 주목을 받으니 영광스럽고 감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도 들었다. 7년간 쉬지 않고 훈련했는데 ‘타이틀’이 생기고 나서야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싶었다.

국내엔 하이다이빙 선수 등록 시스템조차 없다. 어떻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려면 앞서 열리는 하이다이빙월드컵에서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 월드컵은 이전 대회 경력이 있어야 출전할 수 있는데 신인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훈련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제출해 실력을 증명한다. 3년 전부터 꾸준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년 안에 성공하지 못



하이다이빙은?

익스트림스포츠 클리프다이빙(절벽다이빙)에서 유래했다. 남자 선수는 27m, 여자 선수는 20m 높이의 다이빙대 위에서 경기를 펼친다. 위험요소가 많아 국제수영연맹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013년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됐고 국내에는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처음 선보였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 하이다이빙 선수는 약 110명이다. 우리나라는 등록 선수가 없다.



최병화 선수가 더 궁금하다면

최병화 선수가 공중을 가르며 입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하이다이빙이 '인생을 함축한 예술'이라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왼쪽) 올해 5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2023 하이다이빙월드컵에서 최병화가 다이빙하는 장면을 다중촬영한 모습.
(오른쪽) 2022 국제 클리프다이빙 챔피언십(스위스 폰테 브롤라)에서 최병화가 절벽을 배경으로 낙하하고 있다. 사진제공 최병화

하면 운동을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고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그렇게 힘들게 올해 5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에 참가했는데 경기 중 뇌진탕 증상을 느꼈다. 그저 4라운드까지 무사히 마치자는 마음이었다. 24위까지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29위를 했다. 그런데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생겼다. 극적으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출전 통보 이메일을 확인하고 눈물을 쏟을 뻔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훈련비를 마련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았다.

4차 시기에 선보인 기술(뒤로 서서 세 바퀴 돌며 마지막에 반 바퀴 틀어 입수)도 일본 현지에서 처음 시도한 거라고.

4차 시기 기술은 경기 당일 아침에 한 번 연습한 게 전부다. 우리나라엔 27m 다이빙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시도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등록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10m 높이의 정규 다이빙 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찾아 전국을 전전했다. 지상훈련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축구선수가 안방에서만 연습한 격’이다. 울릉도, 제주도, 여수 등에서 절벽 다이빙도 해봤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섬까지 오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낙하한 뒤 다시 절벽에 오르는 동안 체력은 바닥난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체계가 갖춰진 해외로 훈련을 다녔다. 캠프가 열리면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모인다. 방을 빌려 직접 요리해 먹고 카우치에서 쪽잠 자며 체재비를 아꼈다. 코치가 없으니 동료 선수들에게 촬영을 부탁하고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어딜 가나 한국인도, 아시아인도 나뿐이었다.

출전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그럼에도 성적이 아쉽지는 않나?

하이다이빙 선수들 대부분 10m 정규 다이빙 선수 출신이

다. 다섯 살, 여섯 살에 처음 다이빙대에 오른다. 난 스물여섯에 입문했다.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인간승리다. 그러니 전 세계 인구 80억 명 가운데 23명과 싸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꼴찌하고 왜 우냐’, ‘꼴찌를 지원해줄 이유가 있냐’ 하는 등의 악플도 있지만 타격감이 없다. 대회 성적은 세상이 정한 줄 세우기의 한 방식일 뿐이다.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면 27m 다이빙대에 오르는 동력은 뭔가?

낙하할 때의 짜릿한 쾌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우승을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이빙을 통해 이 세상에 나만의 예술작품을 남기고 싶다. 하이다이빙은 인생을 함축한 하나의 예술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이빙대 위에 서는 것, 거기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찰나에 끝나는 것이 다 인생과 닮아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나올 거다. 해외에 나가서도 멀리받기 일쑤다. 뭘로 보나 대한민국의 하이다이버로 사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름길로 가고 싶지 않다. 예술은 원래 비상식적이고 비실용적이다.

최병화는 중학교 때까지 경영(속력을 겨루는 수영)을 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뒤엔 조정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이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뭐든 열정적으로 했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대학은 두 학기를 다닌 뒤 입학 5년 만에 제적됐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접한 하이다이빙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하나의 목표가 됐다. 최병화는 “살아서도 살아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다이빙대에 오를 때만이 내가 반쯤 살아 있는지 완전히 살아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이빙대 위에 서는 것, 거기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찰나에 끝나는 것이 다 인생과 닮아 있다.”

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하이다이빙의 매력은 뭔가?

직접 보면 누구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단 엄청난 높이가 주는 위용이 있다. 우리나라엔 시설이 없으니 영상이나 사진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다. 27m 높이에 올라서면 베테랑 선수라도 두려움을 느낀다. 반복된 훈련으로 이겨낼 따름이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극복해나가는 선수들의 모습 속에 하이다이빙의 진짜 매력이 있다.

그 뒤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친했던 동료가 지난해 훈련 중 세상을 떠났다. 언제든 누구라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선수들 간에는 동업자 정신이 강하다. 상대가 잘못해 내가 더 위에 서기를 바랄 수 없는 거다. 나 역시 근육이 찢기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겪었다. 그렇다고 하이다이빙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무모한 짓은 아니다. 27m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한다고, 패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거기서 오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은 논문까지 찾아가며 연구한다.

사범대를 졸업한 뒤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어른들은 대학에 가라고만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두 학기만 마친 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녔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저 먼 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3등석에 올라 러시아 군인과 대화를 나눴고,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 대신 파리 뒷골목의 삶을 포착하는 데 몰두했다. 뉴라시아 자전거 원정을 떠나 바이칼호수에서 다이빙한 뒤 하이다이빙의 세계에 빠졌다. 어떠한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선 스스로 길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터득했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태우며’ 걸어왔다. 누구도 자본

적 없는 길을 선택한 것,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

올해 4월부터 인천수영연맹에 소속됐다. 훈련 환경은 나아졌나?

인천시체육회의 도움으로 인천시 소속 다이빙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엔 경북 김천, 전남 목포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소속팀 선수들처럼 연봉을 받는 건 아니다. 여전히 자비로 훈련한다. 훈련일정도 다른 선수들에게 맞춰야 한다. 일종의 ‘인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엔 하이다이빙 지원 체계가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렵다. 세계선수권대회조차 사비로 참가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훈련이라기보다는 훈련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당장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 하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다음 스텝은 뭔가?

이번에 23등을 했으니 다음엔 20등 안에 들어야 할까? 그런 건 무의미하다. 이번 대회에 20명이 출전했다면 20등을 했을 거고, 50명이 출전했다면 50등을 했을 거다.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선수가 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목표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말한 ‘예술’이다.

최병화의 조부는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게임(남자 육상 1500m)에 출전해 한국 선수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고 최윤칠 대한육상연맹 고문이다. 최병화는 할아버지의 생전 말씀을 왼쪽 허벅지에 문신으로 새겼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의 환희가 아닌 투쟁이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한 말이다. 매일 삶이라는 다이빙대 위에 오르는 인생 플레이어들을 향해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다이버는 그의 언어로 이를 통역했다. “생애는 오직 단 한 가지 성공의 기준,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만 있다”라고. 최병화는 현재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K]

조윤 기자



9월 5일 중앙경찰학교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에서 훈련생들이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중앙경찰학교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 참관

이상동기 범죄 꼼짝 마!

경찰 교육 대개혁 현장형 경찰 키운다

“칼 버려! 칼 버려!”

흉기를 든 범인과 두 명의 경찰관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 2인 1조의 경찰관들이 한 손에는 방패, 또 다른 손에는 삼단봉을 든 채 큰 목소리로 범인을 압박했다.

실제 상황은 아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의 훈련 모습이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문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무차별적인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를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먼저 신입 경찰 단계부터 새로운 교육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경찰학교에 지난 6월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개장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입 경찰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1987년 개교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신입 순경,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경장, 그리고 101경비단 신입 순경

을 교육한다.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제외하고 현장을 누비는 우리나라 경찰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8개월(34주) 교육을 거쳐 진짜 경찰로 거듭난다.

9월 5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았다. 신입 경찰관 후보생들이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훈련 모습은 실제 현장을 연상케 할 만큼 긴장감이 넘쳤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물리력 사용을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장 상황 그대로 재연한 훈련장

중앙경찰학교 김준열 현장대응학과장(경감)의 안내를 받아 종합훈련장으로 갔다. 훈련장은 단계별로 실제 현장의 모습을 똑같이 구현해냈다. 실제 가정집 출입문, 7m 폭의 격투용 케이지와 철문으로 구성된 격실 등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그곳에서 훈련생들의 종합훈련이 한창이었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 코스는 ▲체력 증진 ▲출입문 진압 ▲삼단봉 사용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 ▲체포·제압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체력단련을 위해 밧줄 당기기와 팔굽혀펴기를 번갈아가며 1분 이상 한다. 다음은 출입문 진압 훈련, 삼단봉 등 장신구 사용 훈련, 테이저건 사용 훈련, 근접 제압 훈련을 연이어 진행한다. 해당 훈련은 2인 1조로 진행된다.

후보생들이 훈련 상황을 시연했다. 먼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순찰차가 다가왔다. 순찰차에서 후보생들이 급하게 내려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다.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40~50개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리고 재빠르게 출입문을 진압한 후 단계별로 작전을 진행해나간다. 거칠게 저항하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훈련은 끝난다.

5분 남짓의 단순한 훈련처럼 보이지만 훈련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질 만큼 체력 소모가 크다. 기자가 직접 훈련 과정 일부를 체험해봤다. 체력 증진 단계부터 쉽지 않았다. 일반적인 밧줄 당기기가 아니라 속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상당한 힘이 필요했다. 5단계의 훈련을 모두 끝낸 후보생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훈련생들은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과 함께 ▲물리력대응 기초훈련(42시간) ▲물리력대응 실전훈련(39시간) ▲경찰순환식 체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 코스

순찰차 출동



체력 증진



출입문 진압



삼단봉 사용



테이저건 사용



사진 C영상미디어

력평가(6시간) 등 3단계의 실전훈련을 거친다. 소극적·적극 저항, 폭력적·치명적 공격 등 상황별 사례에 맞춰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체력 평가도 실시한다.

중앙경찰학교는 기수별로 2400여 명의 훈련생이 입교한다. 훈련생들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꼭 짜인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때문에 기수마다 200~300명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퇴교를 결정한다. 그만큼 훈련은 힘들다.

“국민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경찰관 될 것”

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은 힘들어 보였지만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다. 313기 백지훈 후보생은 “힘들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생은 초등학교 시절 폭탄 테러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의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웠다. 군 복무를 마친 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백 후보생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전 훈련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일선에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313기 중 최연소는 18세 김솔 훈련생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는 그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졸업과 동시에 신입 경찰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경찰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준열 학과장은 “현장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정광성 기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요령

공공장소에서 탈출 경로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 땀 ‘긴급신고 바로’ 앱 통해 신고

‘긴급신고 바로’ 앱 화면.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비롯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8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CCTV 확대 설치 등을 요청했다. 특히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치안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대응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를 지킬 방법도 알아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현장대응학과 김창곤 물리력대응팀장(경감)에게 이상동기 범죄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릴 경우 대응 요령을 들어봤다.

첫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주점이나 유흥가 쪽은 피하고 의심되는 대상자가 있을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공공장소의 경우 항상 탈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죄자들이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장소에 있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둘째,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하고 112신고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게 설정해놓는 것이 좋다.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 경보음이 울리고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애플리케이션 ‘긴급신고 바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피하지 못할 경우 가방, 혁대(벨트), 옷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어해야 한다. 방어가 어려운 경우 과감하게 대상자 급소(얼굴, 낭심)를 공격하고 거리가 생겼을 때 도망쳐야 한다.

넷째, 대상자가 흥기로 공격하면 무조건 흥기를 든 손을 잡아 계속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생존율이 높아진다. 방어 시 중요한 것은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넘어지면 행동반경이 줄어들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다섯째, 긴급상황에 대피해 평상시 개인 호신용구(삼단봉, 스프레이)를 준비하면 더욱 좋다. 여기에 자기 방어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크게 소리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음성 표현을 해 눈길을 끌도록 하자. 또 긴장으로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9월 9~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에서 열린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는 드론쇼로 대미를 장식했다. 사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청와대의 가을밤 K-음악 흐르고 드론 춤추고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후 맞이한 두 번째 가을, K-음악이 푸른 기와를 물들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9~10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등과 함께 청와대 헬기장에서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를 열었다.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예술가들의 협연 소식에 이번 공연의 관람권 1300여 장은 온라인 신청을 받은 지 10여 분 만에 마감된 바 있다.

먼저 9일에는 K-클래식과 국악, K-팝이 청와대를 채웠다.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열었다. 붉은 노을이 지는 초가을 하늘에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졌다. 2017년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선우예권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협연했다. 선우예권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와 인연이 깊다. 그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도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다. 선우예권 스스로 "나의 인생에 동행하는 작곡가"라고 말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음률이 선우예권의 손끝에서 깨어났고 청중은 ‘건반의 마술사’가 부리는 마법에 몸을 맡겼다.

노을 지는 청와대에서 클래식

뒤이어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은 하모니카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민요 ‘새야 새야’를 연주했다. 한국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자이자 세계 하모니카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그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로 하모니카의 묘를 알렸다.

특히 하모니카와 금관악기가 번갈아 독주를 선보이는 구간에서는 청중도 숨을 멈췄다. 전통 민요가 심금을 울린 후 소리꾼 고영열과 고수 고석진이 등장해 ‘북’과 ‘아리랑’으로 흥을 돋웠다. <팬텀싱어3> 준우승팀 출신 소리꾼 고영열은 관객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고수 고석진은 ‘아리랑’에서 4대의 북을 중형무진 누비는 독주를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상임지휘자가 이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를 연주했다. 이어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5번’이 흥을 더했고 발레 ‘호두까기 인형’ 연주는 동화 같은 순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빠키’ 작가의 미디어아트가 무대를 채웠고 윤제호 아티스트의 레이저쇼도 관객의 눈을 흠뻑했다.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8번’의 연주에 따라 레이저도 춤을 췄고 푸른 광선과 연기가 만들어낸 구름이 장관을 이뤘다. 걸그룹 ‘마마무’ 문별과 솔라의 유닛 마마무플러스는 이들의 대표곡 ‘댕댕’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 관현악단과 함께 실험적인 무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의 무대를 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사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를 만들었다.

10일엔 국립오페라단과 K-성악 대표주자들이 무대를 꾸몄다. 소프라노 임세경은 푸치니의 <나비부인> 중 ‘어느 날’을 불렀다. 독일의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은 <세비야의 이발사> 중 ‘힘담은 미풍을 타고’를 열창했다. 바리톤 양준모는 ‘라 트라비아타’, ‘그리운 금강산’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들려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양정웅 감독 연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도 함께 무대에 올랐다. 공개 입양된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장운성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해 ‘넬라 판타지아’를 불렀다. 마지막 무대는 라벨의 ‘볼레로’ 연주에 밤하늘을 수놓은 300대 드론이 장식했다. 리듬에 맞춰 대형을 바꾸는 드론쇼는 공

연의 대미였다.

이번 콘서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을 총연출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총감독을 맡은 양정웅 감독이 연출했다. 그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이벤트를 추구한다”고 했다.

청와대처럼 역사적 공간이 문화 공간이 된 사례는 유럽 곳곳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쇤브룬 궁이 대표적이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별궁인 쇤브룬궁은 2004년부터 궁전의 앞마당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를 연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 축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이는 대표적인 유럽 여름 축제다. 독일의 발트뷔네 페스티벌은 고대 원형 극장에 ‘숲의 무대’를 만들어 매년 6월 베를린필하모닉의 연주로 채운다.

문체부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블루하우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K-뮤직 페스티벌’에는 이찬원, 선예, 옥주현 등이 출연해 국악과 K-팝, 트로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든다. 9월 21일부터 10월 28일에는 창작곡으로 채워진 국악관현악의 전통 연희 공연이 열린다.

10월 7일과 8일에는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이 참여하는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K-클래식 공연도 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깊어가는 가을, 청와대에서는 K-뮤직의 소리도 더욱 깊어진다. **K** 유슬기 기자



‘청와대 밤의 산책’을 찾은 시민들이 경관조명으로 꾸며진 소정원 인근 길을 걷고 있다. 사진 뉴스스

달빛 밝으며 청와대로 밤 산책 가볼까

늦더위가 물러가고 저녁이면 제법 소슬한 바람이 불어온다. 걷기 딱 좋은 날씨, 청와대도 문을 활짝 열었다.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 밤의 산책’ 행사가 열린다.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전 연령 관람 가능한 무료 행사이지만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opencheongwadae.kr)에서 미리 예매해야 한다.

예매에 성공하면 당일 저녁 7시 30분부터 청와대 정문에서 입장이 가능하다. 정문 대기 공간이 넓지 않아 시간에 맞춰 가는 게 좋다. 경내를 여유 있게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코스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 관람이나 발길 닿는 대로 걸어도 된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청와대 내부 대부분의 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데 조경이 일품인 대정원부터 본관(충무실, 세종실 제외)과 옛 본관터,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와 소나무가 웅장한 녹

지원까지 둘러볼 수 있다. 단 영빈권역과 춘추권역은 관람 장소에서 제외된다.

반딧불처럼 불을 밝힌 소정원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정가와 가야금, 피아노를 연주하는 ‘구이임’, 해금과 생황 그리고 기타로 이뤄진 프로젝트 그룹 ‘김예지×한지수×신선호’, 거문고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리마이더스’ 등이 밤 산책의 운치를 더해준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 40분, 오후 8시 20분, 오후 9시 등 3회로 하루 한 팀이 20분씩 공연한다.

1인당 예매 가능한 인원은 6매,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간 양도도 가능하다. 단 우천 시나 태풍으로 관람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도 동반 입장은 가능하지만 내부관람 공간은 출입 불가다. 생수나 텀블러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은 제한된다. **K**

유슬기 기자

청와대 밤의 산책

기간 2023년 9월 13~21일

시간 오후 7시 30분~9시 30분(입장마감 오후 9시)

신청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문의 청와대 국민개방콜센터 1522-7760

만화 도서관 겸 서점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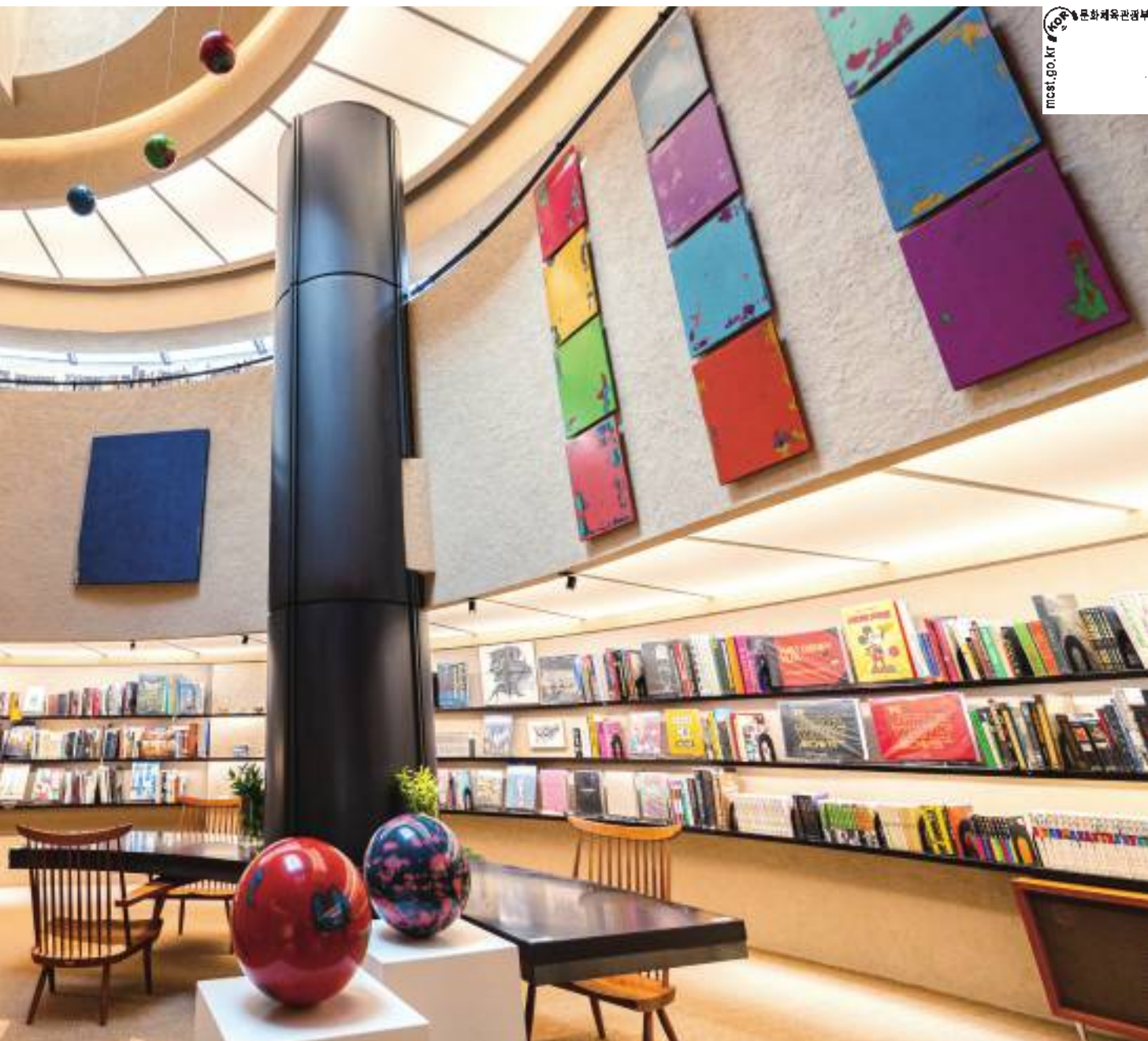
가장 재미있는 만화는 몰래 보던 만화?

19세 미만은 출입금지! 어른들의 놀이터로 오세요



어른이라면 누구나 만화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해주던 인기 만화영화부터 만화방에서 수십 권씩 쌓아놓고 보던 만화책까지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우는 기억들이다. 아직도 주인공은 물론이거니와 등장인물 이름을 줄줄 외우고, 만화 주제를 흥얼거리고, 책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는 만화책을 떠올리는 어른도 많다. 굳이 마니아, 애호가, 덕후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절을 그렇게 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화를 떠올리면 따라오는 기억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타박이다. “공부는 안 하고 웬 만화냐?”, “커서 뭐가 되려고 만화만 보고 있느냐”는 부모님의 타박이 기억의 한 세트를 차지하고 있다. 숨어서 몰래 읽고 들켜 혼나는 게 예사였다. 과거에는 만화방이 유해한 시설로 지정될 정도였으니 만화를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본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재미있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어른들의 타박은 그저 만화의 재미



부드러운 자연광이 가득한 '그래픽' 내부 전경. 두꺼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는 입장 과정은 꽤 드라마틱하다. 사진 C영상미디어

에 달콤함을 더할 뿐이었다. 어른들의 타박을 감내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가며 곳곳하게 만화를 보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됐다.

원기둥을 잘라낸 듯 요새같은 건물

요즘 만화의 위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2021년 우리나라 만화산업은 웹툰을 기반으로 성장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산업 규모는

2017년 대비 2020년 1조 538억 원으로 40.5%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이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플랫폼들의 경쟁 구도까지 더해져 웹툰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또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해외 시장에서 소비되는 한류 콘텐츠 1위가 웹툰 일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웹툰 작가만 9000여 명을 넘어섰고 웹툰 지망생들은 그



‘조각케이크’, ‘소리빌딩’, ‘경리단 구겐하임’ 등 다양한 애칭을 가진 ‘그래픽’ 서점 전경. 종이 사전의 단면이 모티브가 됐다. 사진 ©영상미디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이제 만화는 콘텐츠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래도 취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서점 ‘그래픽’에 방문해보니 그렇다. 아무리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고 스낵컬처(Snack Culture, 과거를 먹듯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웹툰이나 웹소설 등)가 확산돼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는 만화책의 매력은 강렬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려서 만화를 보던 어른들이 죄다 그곳에서 여전히 만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당당히 숨어서 말이다.

그래픽은 만화책만큼 재미있는 곳이었다. 핫플레이스 인증과도 같았던 ‘~리단길’의 원조인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외관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네 겹의 원기둥을 4분의 1로 잘라낸 듯한 건물은 간판은 고사하고 창문 하나 없이 성곽처럼 내부를 톱톡 감싼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오가는 요새이자 아지트로 완

벽한 어른들의 놀이터였다.

절판 도서·고가 서적 “마음 놓고 보세요”

2022년 3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 그래픽은 유료 만화 도서관 겸 서점이다. 혹자는 북 카페나 술 마시는 만화방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다.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소개하자면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전문 서점이다. 그래픽 노블이란 그림(Graphic)과 소설(Novel)의 합성어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다. 슈퍼히어로물이 범람하던 미국 만화계에 문학과 예술성이 강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고 나타난 만화를 가리킨다.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며, 스토리에 완결성을 가진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픽은 매달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읽고 선택한 그래픽 노블 만화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9월 추천작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잔혹하고 압도적인 무



천장에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이 내부 곳곳을 채운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서점 그래픽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39길 33
영업시간 화~일요일 오후 1시~밤 11시(월요일 휴무)
전화 070-4070-0204
입장료 1인 1만 5000원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3회 방문 시 1회
 입장료 무료(쿠폰) /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1만 원 할인 /
 주류 구매 시 무료 입장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raphic.fan

기의 역사를 다룬 〈원자폭탄(글 디디에 알칸트·로랑 프레데릭-볼레, 그림 드니 로디에)〉, 미묘한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한 〈염소의 맛(바스티앙 비베스)〉, 절대악을 논하는 명작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등으로 그래픽 노블을 중심으로 오직 작품성만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밖에도 일반 만화책부터 다양한 장르의 사진이나 아트북, 그림책도 상당수 있다. 아트북 전문 출판사 타센과 계약해 미술은 물론 건축이나 화보집 등 희소 가치가 높은 아트북도 갖추고 있다. 또 절판된 도서는 물론 고가의 서적 등도 감상할 수 있어 책을 좀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찌감치 명소로 소문이나 있는 곳이다. 특히 일반 서점에서는 비닐에 쌓여 있어 구입하지 않는 한 읽을 길 없는 만화책이나 아트북, 화보집 등을 그래픽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비닐에 쌓인 책이 없다.

그래픽은 총 3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는 내부는 창문 하나 없는 외관과 대비돼 마치 게임 속 숨어 있는 던전(게임에서 몬스터들이 모여 있는 소굴)에 들

어온 기분을 준다. 천장에 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연광은 공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거기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극적인 재미가 가미된다. 만화도서관을 자처하는 서점에서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니 의아할 것이다. 만화광이자 애주가인 그래픽 대표는 건축가에게 ‘어른을 위한 술 마시는 만화방’을 주문했다고 한다. 서점처럼 딱딱하지 않고 그렇다고 술집처럼 너무 자유분방하지도 않으며 그저 마니아들이 조용히 와서 그래픽 노블을 즐기는 제3의 유희공간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픽에서는 위스키와 와인, 생맥주 등 주류 주문이 가능하다. 그래픽이 완벽한 어른 놀이터라 불리는 이유다.

취향 공유하는 제3의 문화 공간

그래픽에는 20여 개의 테마로 분류된 총 5000여 권의 장서가 있다. 이 가운데 직원들이 읽어보지 않고 비치한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그만큼 그래픽은 만화의 큐레이팅에 진심이다. 그동안 저평



절판 도서, 고가의 한정판이 전시된 공간으로 마음껏 꺼내서 볼 수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가된 만화라는 장르를 새롭게 알리고 작품성 있는 책들을 발굴해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1층에는 일본 작가 데스크 오사무의 만화를 비롯해 미술·건축·디자인, 마블&DC코믹스, SF, 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 장르 서적과 판매용 도서를 소개하는 공간이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타로카드와 역동적인 파도 그림으로 유명한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고가의 한정판도 이곳에 전시돼 얼마든지 꺼내볼 수 있다.

2층에는 매월 SNS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 추천 도서들과 일상·힐링·성장, 모험·시대극·무협 등의 장르 서적을 만나볼 수 있다.

3층은 사진과 음악, 패션 매거진 등이 비치돼 있으며 공항 라운지 콘셉트의 음료 라운지와 바(Bar)가 있다. 일반 서점처럼 검색대는 없지만 직원들이 읽은 후 진열해놓았기 때문에 원하는 책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이 역시 그래픽의 의도다. 차가운 비대면 시스템 대신 직원과 대면 소통을 통해 책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니, 운영 방법마저 마니아들의 취향을 정조준한다. 그래픽 노블이 낯설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마블시리즈, 해리포터, 디즈니, 지브리 등 알 만한 만화책도 다 있다.

그래픽의 진심은 책을 읽는 가구와 의자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래픽 1층부터 3층까지 전 공

“영감을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며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제3의 문화 공간, 그것이 그래픽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지다.”

간에는 통일된 의자나 탁자가 없다. 1층은 계단에 쪼그려 앉을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안쪽에 반쯤 눕거나 완전히 누울 수 있는 소파가 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누워 책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의 자세를 아홉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공간에 녹였다. 층마다 콘셉트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저마다 취향대로 장소를 선택하고 책을 골라 가장 편한 자세로 읽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멋진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아 맥주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시리즈의 만화를 탐처럼 쌓아놓고 읽는 것,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발을 편하게 올려놓을 받침대, 포근하게 덮을 거리도 있다. 무엇을 원하든 그래픽은 ‘상상’을 응원한다.

그래픽을 이용하려면 1만 5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이용시간 제한이 없고 음료(주류 별도)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계다가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1만원 할인, 주류 구매 시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래픽은 전문 서점을 넘어 공간이 가진 힘을 충분히 활용해 작가 작품 전시나 고객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영감을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며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제3의 문화 공간, 그것이 그래픽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지다. **K**

강은진 객원기자

“음식 통해 한일 교류 돕자” ‘식객’과 ‘고독한 미식가’가 만났다



허영만·구스미 마사유키 작가가 9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식객’과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가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3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 음식만화 〈고독한 미식가〉를 쓴 구스미 마사유키 작가와 〈식객〉 허영만 작가의 대담을 진행했다. 음식을 통해 한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려는 자리였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마주한 두 작가는 “지역의 제철 음식, 현지 맛집에 대한 관심이 관광과 재방문을 이끄는 중요한 매력”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앞으로 음식을 매개로 한일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스미 작가는 세계 10여 개국에서 출간된 〈고독한 미식가〉를 비롯해 〈하나씨의 간단 요리〉, 〈황야의 미식가〉, 〈방랑의 미식가〉 등 다양한 음식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활동했다. 〈고독한 미식가〉가 드라마로 제작됐을 당시엔 회차마다 작품에 등장한 식당을 작가가 직접 방문하는 코너를 진행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드라마를 즐

겨 본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주목받았다. 구스미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한 미식가〉를 언급해 깜짝 놀랐다. 한일 양국 교류에 내 작품이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는 것은 여행과 같다. 도쿄의 코리야타운인 신오쿠보에는 한국 호떡과 핫도그를 즐기는 젊은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일본 젊은 이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이 한국 여행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K-푸드 콘텐츠 일본에 소개

이에 대해 허 작가는 “음식은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충동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본 소도시의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여행 책 〈이토록 맛있는 일본 이라면〉을 준비하며 일본의 산골 농촌을 들렀다 갓 수확한 메밀로 만든 메밀국수에 반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에도 사시사철 탱탱하고 촉촉한 면 맛이 일품인 국수집이 있다. 같은 메밀국수도 한일 양국이 어떻게 다르게 즐기는지 직접 맛보시라”며 본인의 단골집을 추천했다. 국민 만화가로 불리는

허 작가는 2019년부터 방송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통해 전국의 숨겨진 한국의 맛을 소개하고 있다. 만화 〈식객〉은 드라마·영화로도 제작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구스미 작가는 서울 종로구 서촌과 삼청동 등 일본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만한 골목 맛집들을 찾았다. 문체부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음식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가 일본 남성 시청자에게 인기가 많은 점에 착안해 ‘샐러리맨 맛집’, ‘혼술 맛집’ 등의 콘셉트로 제작한다. 또 K-푸드 콘텐츠 25개를 발굴해 오는 10월 개최되는 ‘오사카 투어리즘 엑스포’에서 현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2022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 방문 시 가장 희망하는 활동 1위는 ‘맛집·미식 탐방(64.1%)’으로 나타났다. 또 방한 일본 관광객의 10명 중 7명(73.7%)은 다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외래관광객 대상). **김** 조윤 기자

숨은 국대 찾기



이장현·이예원 부녀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웃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기부천사’ 이장현·이예원 부녀

헌혈하는 아빠 머리카락 기부한 딸 나누는 마음도 봉어뽕



이예원 양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던 날.
아버지 이장현 씨는 100번째 헌혈을 했다. 사진제공 이장현

‘사람의 신체와 터력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부모에게 효하는 법을 담은 공자의 〈효경〉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로 시작한다. 올해 11세인 이예원 양은 부모로부터 터력과 살갗뿐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았다. 자신의 일부를 타인과 나누는 기부 유전자다. 이 양은 태어날 때부터 10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어린 소아암 환자를 위해 나눴다.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던 날 아버지 이장현 씨는 자신의 혈액을 타인과 나눴다. 100번째 헌혈이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우리나라 헌혈 인구는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혈용 혈액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씨처럼 한 번 헌혈에 참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혈액기부를 이어가서다. 올해 47세가 된 이 씨는 20대에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101회 피를 뽑았다. 그는 성분헌혈(필요한 성분만 헌혈)을 주로 했는데 전혈헌혈(모든 성분 헌혈)이 15~20분이면 마치는 반면 혈소판과 혈소판혈장만 채혈하는 성분헌혈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전혈헌혈은 이후 8주 동안 헌혈을 하지 못하지만 성분헌혈은 2주 후부터 가능하다. 이 씨가 매달 격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이 양은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헌혈원에 갈 때면 놀이터에 가듯 따라갔다. 아빠가 채혈하는 1시간여 동안 곁을 지켰다. 헌혈원 간호사는 이 양을 알아보고 간식도 챙겨주고 놀아주기도 했다. 아빠의 선행을 보고 자란 이 양에게 기부는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올해 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양은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다. 40cm 길이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뒷목은 허전했지만 마음은 풍성했다. 이번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아이가 10대가 되면 자연히 부모와 멀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녀는 다르다. 주말이면 경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에 참여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게 주말의 루틴이다. 헌혈도 기부도 봉사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일부라고 말하는 이장현·이예원 부녀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났다.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네요.

이예원 처음엔 어색했는데 친구들도 예쁘다고 하고 날이 더울 땐 시원하기도 해서 좋아요. 머리 감고 말리기도 편하고요. 2~3년 더 길러서 한 번 더 기부를 하고 싶어요.

이장현 배넛머리부터 기른 머리카락이라서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딸이랑 미용실에 처음 가봐서 그날 예원이 머리카락 자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미용실보다는 헌혈원에 더 자주 갔죠.

이장현 제가 매달 격주 토요일에 헌혈을 하는데 예원도 그날은 시간을 비워두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법도 한데 항상 함께 가줍니다. 이제는 선생님들과도 친해졌어요.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장현 제가 20대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살아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다 헌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헌혈이 올해 100회를 넘었다고요.

이장현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헌혈을 꾸준히 하려면 습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직장에서 걸어다닐 만한 거리에 헌혈원이 있었는데, 직장을 옮기고 나서는 규칙적으로 헌혈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후론 매달 격주 토요일을 헌혈하는 날로 정하고 지

키고 있어요. 한 번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헌혈을 매달 할 수 있나요?

이장현 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헌혈과 혈소판이나 혈장을 헌혈하는 성분헌혈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성분헌혈이에요. 전혈헌혈은 한 번 하고 나면 두 달이 지나야 하는데 성분헌혈은 2주만 지나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리죠. **100번째 헌혈은 더 특별했겠네요.**

이장현 예원이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원이 기부하는 날을 100번째 헌혈 날로 맞추면 뜻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너의 결정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예원 가기 전에 차에서 아빠랑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아빠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소아암 어린이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이예원 우연히 유튜브에서 소아암 환자는 머리카락이 빠져서 가발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 내 머리카락을 다른 아이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기부할 수 있는 단체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장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는 ‘어머나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더군요. 25cm 이상의, 되도록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고무줄을 묶은 채 자르고 서류봉투나 작은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발기부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원도 한 번 기부를 하더니 머리카락이 자라면 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1.5cm 정도 자란다. 25cm 이상의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암환자용 가발의 평균 가격은 200만 원이 넘는다. 가발 한 개에 머리카락



“
머리카락 자르는 건
아프지도 않잖아요.
또 자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어요.”

“

예원이가 기부하는 날을
100번째 헌혈 날로 맞추면
뜻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너의 결정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약 10만 개가 필요해서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피부가 연약하고 작은 통증도 힘겨워하므로 공정 과정에서 향균·멸균 처리를 추가한다. ‘어머니운동본부’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로 가발을 받았던 당사자가 훗날 모발 기부자가 된 사례도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은 가발 구입도 부담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기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군요.

이장현 혈액이든 머리카락이든 건강해야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건강해야 나눠줄 수 있고요. 계속 건강해서 60대까지 헌혈을 하고 싶어요.

이예원 제 머리카락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카락 자르는 건 아프지도 않잖아요. 또 자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어요.

두 분이 꼭 닮았습니다.

이장현 예원이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짧아지니까 정말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봐도 신기합니다. 제가 서른여섯에 예원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20대 때부터 항상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원이가 태어나고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선물 같아요. 태어난 날부터 거의 모든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기부를 한 날의

자료도 다 저장해놨어요. 사진, 영상, 그날 느낀 것들도요. 나중에 이 기록이 예원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가족봉사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이장현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봉사단’이라고 신청한 가족들 중에 몇 가족을 선정해서 함께 봉사를 해요. 아내가 함께하면 뜻깊겠다고 해서 신청했고 저희도 선정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하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노인이해 교육을 받고 그분들께 공기정화식물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고요. ‘주말에 어디 갈까’가 항상 고민인데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니깐 뿌듯하기도 하고 추억도 되더라고요. 봉사활동 마치고 같이 맛집에서 외식도 하고, 함께 봉사하는 다른 가족들과 친해지기도 하고요.

이예원 엄마 아빠랑 같이하니깐 더 좋아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봉사활동이 오전에 끝나니까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놀 수도 있고요.


예원 양은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이장현 지금은 학급 회장인데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 6학년 때는 전교 회장도 도전한다네요. 지금 수줍음을 타는 것 같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아주 씩씩합니다.

이예원 더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체육대회를 열면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운동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예원 롤러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요. 어릴 적에 아빠가 데려가 주셨는데 이후로는 매주 롤러스케이트장에 가요.

이장현 예원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튼튼한 편이었어요.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고요. 예방접종하러 병원 가는 거 외에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애가 건강한 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건강하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할 일이죠.  유슬기 기자



전남 광양 옥룡사지로 향하는 길에서 옥룡사지터와 가까운 운암사의 황금불상이 보인다.

전남 광양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
경남 하동 쌍계사

천년 동백림 지나 호리병 속 별천지서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배우다

조유리 작가

여행작가이자 인스타그램(@curryuri) 팔로워 19만 8000명을 보유한 인스타 셀럽.
남편인 코미디언 김재우와 함께 '카레부부'로 불린다.
저서로 <카레부부의 주말여행 버킷리스트>(2021)가 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다. 자리를 지켰던 무언가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텅 빈 자리에 새로움이 들어서고 나서야 비우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닫는다.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에는 절 대신 동백림이 있다. 동백림은 사라진 옥룡사 대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채우고 있다. 가장 혹독한 계절, 겨울에 꽃을 피워내는 붉은 동백은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피워내는 우리 삶과 닮았다. 동백나무 덕분에 옥룡사가 사라진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 화려했던 옥룡사의 흔적을 메운 동백나무 숲은 사색을 부른다. 상실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 빈자리를 아름답게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천년의 동백 숲길 옥룡사지 동백림

전남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천년의 숲길을 품은 백운산의 지맥인 백계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옥룡사지로 가

기 위해서는 먼저 운암사를 지나서 동백나무 오솔길을 따라 가야 한다. 푸르른 동백 숲 너머 높이가 40m나 되는 운암사의 거대한 황동약사여래입상이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본다. 가볍게 눈을 뜬 약사여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옥룡사지로 걸어갔다. 이곳은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옥룡사지로 가는 길에 있는 참선의 길은 상쾌한 숲 향기를 맡으며 걷기 좋다. 숲길을 지나면 탁 트인 초원이 나타난다. 1878년 화재로 옥룡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넓은 터만 남았다.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동백나무 1만여 그루가 천년의 역사를 대신 말해준다. 수분이 많은 동백나무 잎은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수의 역할을 하기도 해서 남부지역 사찰 주변에는 동백나무 숲이 많이 조성돼 있다고 한다.

붉은 꽃을 피워내어 가장 아름다울 때 꽃봉오리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는 동백꽃의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다. 봄이면 절정의 순간 자신을 던진 동백꽃들이 새빨간 꽃길을 만들어놓은 장관을 볼 수 있다. 봄이 아니라도 모든 계절이 좋다. 꽃이 지고 없어도 울창한 숲이 강렬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어 방문객에게 상쾌한 에너지를 준다.

이곳 동백나무 숲은 신라 말기 승려 도선국사가 옥룡사 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동백나무를 심은 것에서 시작됐다.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진 도선은 땅의 약한 기운을 바로 세우고 강한 기운은 눌러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다. 옥룡사지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탄하고 양지바른 터에 위치하고 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푸르른 들판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다. 옥룡사지의 끝에는 소망의 샘이 있어 소원을 빌며 샘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는 사이 좋게 소망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약수를 마셨다. 약수를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샘물이 나의 소원도 이뤄줄까?

호리병 속의 꽃이 피는 골짜기, 쌍계사

광양시에서 경남 하동군 쌍계사로 행선지를 옮긴다. 전남과 경남의 경계에 있는 두 지역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내외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쌍계사로 향하는 길은 특별하다.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이 지은 시에 쌍계사까지 떠나는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적혀 있다. 최치원의 시는 1591년경 쌍계사의 스님이 바위틈에서 쪽지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사찰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인해 소실됐다. 사찰이 사라진 자리 주위로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생겼다.

카레부부가 추천하는 사진스팟



① 시원하게 펼쳐진 초록 들판 옥룡사지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옥룡사지는 1만 그루의 동백나무를 주변에 두고 푸르른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다. 조용하고 평안하지만 막힌 곳 하나 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들판에서 사진을 찍어보자. 액자에 넣고 싶을 만큼 멋진 배경이 함께 찍힐 것이다.

② 화려한 처마 아래에서 칠불사 원음각

칠불사의 범종이 있는 원음각의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단정하다. 화려한 칠불사 처마의 오묘한 색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면 한국적 전통미가 담긴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남 하동 쌍계사에 있는 구층석탑. 월정사 구층석탑과 형태가 유사한데 개인의 시주로 세워졌다.
(아래) 쌍계사를 통과하는 계곡의 물소리는 마음까지 정화시켜준다.

러났다. 제목은 ‘화개동—꽃이 피는 골짜기’다.

동쪽나라의 화개동 골짜기에는 호리병 속 별다른 하늘 있는지 신선이 옥 베개를 밀쳐둔 채로 몸과 세상 어느덧 천년이 갔네 봄이 오면 꽃은 땅에 가득하고 가을 가니 낙엽 하늘을 나르네 지극한 도는 문자를 떠나 있어 본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네

호리병 속의 다른 세계는 바로 이곳 화개면에 위치한 쌍계사를 말한다. 신선이 옥 베개를 밀치고 별천지에 머물러 있다는 시구처럼 쌍계사의 입구는 호리병의 주둥이처럼 좁은 일주문으로 시작된다.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화사한 일주문의 돌다리를 건너면 쌍계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수양하고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일주문을 지나면 호리병의 중간 허리인 금강문으로 갈 수 있다. 금강문 안에는 불교의 수호신들이 용맹한 자태로 문을 지키고 있다. 천왕문을 지나 팔영루에 도착하니 드디어 쌍계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었다. 대웅전 앞에 하동 쌍계사 구층석탑이 세워져 있다. 석탑 안에는 석가모니의 사리와 전단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다. 대웅전 양측에는 국보인 진감선사탑비와 석등이 세워져 있다. 신라 말의 명승인 진감선사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비는 당대의 문장 연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국보로 지정됐다.

수많은 보물과 국보가 보존돼 있는 쌍계사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안과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쌍계사 입구에 쓰인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라는 글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조용한 사찰의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그 무엇이든 살아있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천년 온돌방 보존된 칠불사

쌍계사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칠불사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화려한 처마가 볼 만하다. 칠불사의 특이한 점은 신라시대의 '아(亞)'자 방터가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자방은 온돌 방식으로 신라시대 때 축조돼 천년이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고친 일이 없다고 하니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방을 위해 온돌을 이층으로 구축했는데 그로 인해 한 번 불을 넣으면 상하 온돌과 벽면까지 100일 동안 따뜻했다고 전해진다.

칠불사가 처음 창건된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1세기경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가 외삼촌인 인도 승려 장유보옥선사(長有寶玉禪師)를 따라 칠불사에 와서 수도한 지 2년 만에 모두 성불해 '칠불사'라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1998년 8월 3일 사적 제407호로 지정됐다. 옥룡사지는 통일신라 말기의 뛰어난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선각국사 도선이 35년 동안 머무르면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다가 입적한 곳이다. '옥룡'이라는 지명은 도선의 도호인 '옥룡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주소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35-1

전화번호 061-795-2418



쌍계사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3년(724년) 대비(大悲), 삼법(三法) 두 화상이 선종(禪宗)의 육신인 혜능스님의 두개골을 모시고 귀국, "지리산 설리갈화처(雪裏葛花處·눈쌓인 계곡 침꽃이 피어 있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문성왕 2년(840년) 중국에서 선종의 법맥을 이어 귀국한 혜소 진감(眞鑑)선사가 퇴락한 삼법스님의 절터에 대가람을 중창했다. 벽암, 백암, 법훈, 만허, 용담, 고산스님의 중창을 거쳐 오늘날 고색창연한 자태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전화번호 055-883-1901

입장료 성인:2500원 / 하동군민:1000원 / 화개면민, 만 18세 미만, 경로, 국가유공자, 장애중증, 장애경증 본인:무료 (문화재보존구역 입장료)



는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십 수년 동안 나를 가득 채운 일상이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일터로 갔다. 안정적이던 나의 일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의 통장을 채워주던 월급도,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던 직장의 명함도 사라졌지만 그 비움의 시간을 차지한

것은 두려움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조용한 사찰에서 그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희미해졌던 채움의 미학이 내 안에 새롭게 피어올랐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불안해할 것 없다. 나는 두렵지만 행복할 것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울 것이다. 마침내 안락해질 때까지 비움을 나만의 방법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K**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고

오랜만에 함께 골프를 친 짝 사장과 지부장.



많을 때는 아군, 적을 때는 적군이 되는 것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출근길 내내 지각할까봐 서두르게 된다. 괜히 끼어드는 차들에 경적을 울리며 짜증을 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차선을 몇 번이나 바꾸는 등 평소와 달리 난폭 운전을 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 기간이 돼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마다 ‘평소에 미리 공부해둘 걸’ 생각한다. 월급날 기대에 부풀어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잠시, 각종 공과금과 함께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으면 뒤늦게야 ‘평소에 아껴 쓸 걸’ 후회한다.


시간과 돈의 공통점이 있다. 많을 때는 아군이지만 적을 때는 적군이 된다. 돈과 시간이 많을 때는 마음이 크고 넓어지지만 적을 때는 작고 좁아진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술 마시고 과식하고 담배를 피워도 별 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다 어디가 이상해지면 그제야 ‘평소에 관리할 걸’ 뒤늦은 반성을 한다.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힘이 든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파진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비슷한 상황을 수십 번이나 겪는다. 잔뜩 긴장한 채로 진료를 받으러 와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얼굴이 활짝 밝아지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과식을 한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제야 금연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나쁜 습관을 고치기 시작한다.

2년 전에 받은 폐암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계속 담배를 피우던 환자가 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제야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부터라도 금연하겠다”며 진료의뢰서와 함께 금연약을 받아갔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수술을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 암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문득 중국의 손자(孫子)가 한 말이 떠오른다. “참혹한 전쟁을 거쳐 이기더라도 그것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이다. 또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도 있다.

명장이란 참혹하게 전투를 벌여 가까스로 이기는 장군이 아니다. 진정한 명장은 평소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 다른 나라가 침입할 엄두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다.

시간과 돈은 항상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몸은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 질병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빛나는 외모만큼 눈부신 마음을 가진 의사.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주치의>를 비롯해 7권의 책을 썼다. 의사가 아니라 작가로 돈을 벌어서 환자 한 명당 진료를 30분씩 보는 게 꿈이다.

스승과 제자 11년 만에 무대에서 만나다



공연 장한나&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한나가 스승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12년 애플루트 클래식 공연 이후 11년 만이다. 장한나에게 마이스키는 음악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음악을 대해야 하는지 알려준 진정한 스승이다. 마이스키 역시 평소 장한나를 유일한 제자로 칭하며 그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급 첼리스트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장한나는 이제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로 더 유명하다. 그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쾰른 필하모닉, 비엔나 심포니, 리버풀 필하모닉, 시애틀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2017년 9월부터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 2022년 9월부터는 함부르크 심포니의 수석 객원지휘를 맡고 있다. 이틀간 이어지는 공연에서 두 사람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5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등을 연주한다.

기간 9월 23~24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뮤지컬 판

19세기 말 조선, 서민들 사이에 흥흥한 세상을 풍자하는 패관소설들이 퍼진다. 세책가를 중심으로 소설들을 모두 거둬 불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과거시험에 관심이 없던 부잣집 도령 달수는 세책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덕에게 반한다. 이덕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여성

춘석이 운영하는 매설방에서 전기수를 위한 소설을 필사한다.

기간 9월 19일~11월 26일 장소 대학로 티오엠 1관



공연 2023 팜트리아일랜드 갈라 콘서트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선다. 김준수, 김소현, 정선아, 손준호, 진태화, 서경수, 양서윤 등 팜트리아일랜드 소속 7명의 뮤지컬배우가 완벽한 음악 구성과 화려한 무대 연출로 팬들을 만난다. 양주인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풀오케스트라 무대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선사한다.

기간 9월 22~24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극 카르멘

자유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카르멘과 그녀를 소유하고자 인간됨을 쓰는 돈 호세의 집착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1820년경 스페인 세비야의 한 부대, 돈 호세의 약혼자 미카엘라가 돈 호세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그를 찾아온다. 경비대장 즈니가는 돈 호세를 집시여인 카르멘에게 이끈다. 돈 호세와 카르멘은 서로 묘한 이끌림을 느낀다.

기간 ~10월 1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국립오페라단이 베르디 탄생 2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공연이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던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가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다룬다. 베르디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인간 본질과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전한다.

기간 9월 21~24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도서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중심주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문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플레이어 중심주의(플레이어 포커스)'에 있다. '플레이어 포커스'는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커뮤니티를 이어주며 글로벌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초대 지사장이자 본사 프레지던트를 지낸 저자가 라이엇게임즈의 성공 전략을 알려준다.

저자 오진호(골든레빗)



도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로 40만 독자를 사로잡은 조원재 작가가 신작을 들고 왔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예술을 매개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예술로부터 진정 얻어야 하는 것은 예술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한다.

저자 조원재(다산초당)

장가현 기자

온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전시



괴짜전

기간 ~10월 8일까지
장소 K현대미술관



스티키몬스터랩:스틸 라이프

기간 9월 21일~2024년 1월 7일
장소 그라운드시소 성수



두근두근 도라에몽展

기간 ~2024년 3월 3일까지
장소 대구 이월드 83타워 뮤지엄

공감 칭찬합니다 :)



721호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완벽 차단, 안전하지 않은 식품 국민 식탁에 안 올린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줘 좋았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니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는 수산물을 소비할 때 불안감이 예전보다 덜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송병철 세종시 새롬동



720호 구릉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구릉지에 산 적이 있어 이동할 때마다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급경사 지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인근 주민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네요. 외관 디자인도 멋집니다. 이런 공공디자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수진 경기 고양시 향동동



...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주말에 어머니 혼자 계신 고향 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하더군요. 도시에 사느라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별 헤는 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별 속에서 북두칠성을 찾았어요.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이공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blog blog.naver.com/mcst_pr

k v.daum.net/channel/3094

f facebook.com/wegonggam

youtube.com/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칭찬합니다'와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7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홈페이지
buykresta.org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2023.8.30 ~ 9.27



동행축제 홍보모델
라비댄스

